협회소식

본회, 지난 5월 7일 제3차 정기이사회의 개최

- 헌법소원 제기 도축장 취하 설득키로

본회는 지난 5월 7일 오전 11시 본회 회의실에서 최영열 회장 등 이사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이사들은 본회 김동성 전무로부터 지난 2차 이사회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후 주요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조금 거출관련 도축장 대표자 헌법소원에 따른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소 제기 도축장에 우호적인 방문 및 설득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취하하는데 노력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기존의 강원 홍천지회를 폐쇄하고 홍천지부 설립을 승인하는 한편, 본회가 발행하고 있는 주간양돈정보의 제호를 "양돈자조금"으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이사들은 규정개정(안)을 심의하고 수의계약 범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변경하는 원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사들은 양돈지도자 연수회 개최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본회 조사결과 양돈농가중 57%가 PMWS 발생 경험

국내 양돈농가 10곳중 5~6농가는 PMWS(돼지 이유후 전신성 소모성 증후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본회의 각 지부(회)를 통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수 161농가중 57%에 해당하는 92농가가 자신의 농장에서 PMWS가 발생했다고 응답했다.(자세한 내용은 본문 100페이지 참고)

PMWS 피해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긴요

본회는 지난 5월 6일 본회 회의실에서 김동환 방역대책위원회 위원장, 박봉균 부위원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방역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방역대책위원들은 PMWS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근본적인 대책 방안 수립을 위한 현장 실태와 감염원인 경로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 차원의 공조와 대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세한 내용은 본문 102페이지 참고)

본회, 구제역 피해 농가 긴급경영자금 상환 기한 연장 요청

지난 2002년 5월 경기 안성, 용인, 평택, 이천 등 구제역 발생지역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연리 3%의 2년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 경영안정자금이 5월에 상환기일이 도래했으나 농가들은 구제역 발생 이후 기반 재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집중해 아직 영영 정상화가 안된 상태로 자금 상환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회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29일 정부에 구제역 발생 지역 양돈농가들의 어려운 현실을 십분 감안해 5월중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경영안정자금의 상환기한을 2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 살처분 농가 생계 안정자금 지원 확대 요청

본회는 최근 가금인플루엔자 등의 발생으로 인해 이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살처분을 실시한 양돈농가들에 대해 지원되는 생계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정부의 생계비 산출 근거가 산란계 및 종계농장을 기준으로 수익의 재발생 기간이 6개월로 계산되고 있어, 실제 양돈농가의 경우 19개월이 지나서야 수익이 재발생되는 실정상 적정한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영열 회장,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주장

– 지난 4월 19일, 매일경제TV와의 인터뷰서 강조

본회 최영열 회장은 지난 4월 19일 매일경제TV(MBN)에서 오후 1시부터 방영된 "김성경의 라이브투데이(1부)"와의 인터뷰를 통해 외국산 삼겹살 수입이 폭증하는 것과 관련해 양돈협회의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우선 삼겹살 가격이 칠레 등 외국산의 경우 생산비가 국내의 50% 수준이라고 밝히고, 미국 등 다국적 기업들이 칠레에서 돼지고기를 생산해 한국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되다며, 값이 싼 돼지고기가 국내로 밀려들어오게 되면 양돈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전제한 뒤, 협회는 현재의 삼겹살 위주로 소비가 편중되어 있는 소비문화를 등심, 다릿살 등으로 소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농가들 스스로 양돈자조금을 거출하고 있는데 이 자금을 이용해 삼겹살로 편중되어 있는 문화를 안심, 등심, 전·후지 등으로 소비를 확대해 균형 있게 돼지고기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반드시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양돈농가 정보화 수준 - 아직은 "글쎄"

국내 양돈농가들은 농가 스스로 정보화 수

준을 비교적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귀하는 국내 양돈농가의 정보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614명이 응답한 결과 답변자의 30% 가량이 국내 양돈농가의 정보화 수준은 비교적 낮다고 대답했다.

전체 답변자중 정보화 수준이 '비교적 낮다'가 29.3%를 나타냈으며, 두 번째로 '비교적 높다'로 답한 응답자가 22.1%를 나타냈다. 또한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17.4%이며, 16.8%는 '아주 낮다'라고 응답했다. 반면에 '아주 높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1.9%였다.

본회, 원로양돈인 간담회 개최

-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본회는 지난 5월 1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최영열 본회 회장, 김동환 부회장 등 과 김건태 명예회장, 전동용, 최상백 전 양돈협회장, 한백용 고문 등 양돈원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로양돈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양돈협회 운영과 양돈산업 현안을 논의했다.

김건태 명예회장은 "농민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이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며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는 액비화 등 축산분뇨의 유통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 김운중 이사는 태국 등에서 수입된 사료원료의 품질 저하를 지적하며 협회 차원의 곡물 저장 방법에 대한 조사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본회 최영열 회장은 축산업 등록제가 참여하는 양돈농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도록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하고 농업기반공사 등에 농경지 구입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로 양돈인들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건설, 무허가축사 양성화 방안, 농가를 위한 비과세 저축 확대 건의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본회, 유럽 양돈산업 실태조사단 파견

본회는 국내 양돈산업의 정책 수립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키 위해 양돈 선진국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코자 본회 김동환 부회장 등 3명의 부회장들과 회원 농가, 기획팀 김동완 대리 등과 함께 농림부, 축산연구소, 한국종축개량합회, 축산신문사 등 양돈관련 담당자 등 민·관 합동으로 유럽 양돈산업 실태조사단을 구성하고 5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파견했다.

조사단은 이 기간동안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3국을 방문하고 이 기간중 유럽에서 열리는 사료박람회와 양돈박람회를 참관하고, 덴마크 DS(Danish Slaughter), 덴마크 돈육연구소(DMRI), Danish Crown도축장, 비육농장 등을 방문해 유럽의 양돈산업을 조사하였다.

본회, 회장단 · 전직원 워크숍 개최

본회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제주도에서 회장단 및 전직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조직 활성화와 업무능력 활성화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회장단 및 직원들은 양돈협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했으며, 조직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각 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한편 양돈산업 및 국산 돼지고기를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정한 주제를 정해 장기적인 계획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과 일반 소비자가 운영하는 돼지고기 소비홍보 관련 홈페이지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제1검정소 검정돈낙찰가 평균 87만1천원

지난 4월 20일(화) 본회 공인종돈능력검정소 제1검정소(경기 이천) 제236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는 87만1천78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돈 3두를 비롯 총 123두의 합격돈이 상장되어 전 두수가 낙찰된 이날 경매에서 수컷 평균 낙찰가는 1백1만4,419원(86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54만270원(37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경기양돈 듀록 수컷(선발지수 271점) 슈퍼돈이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84번지 정영철(영도축산)씨에게 최고 낙찰가인 2백50만원에 낙찰됐다.

제2검정소 검정돈낙찰가 평균 78만6천원

지난 5월 12일(수) 본회 공인종돈능력검정소 제2검정소(경남 하동) 제165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는 78만6천178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매에서는 총 157두의 합격돈이 상장된 가운데 열린 이날 경매에서 수컷 평균 낙찰가는 83만8,678원(121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60만9,722원(36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문경FINE 듀록 수컷(선발지수 261점)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룡동 89-5번지 박종태(축산연구소)씨에게 최고 낙찰가인 3백만원에 낙찰됐다.

도협의회 및 지부소식

본회, 홍천지부 설립 승인

고영민 홍천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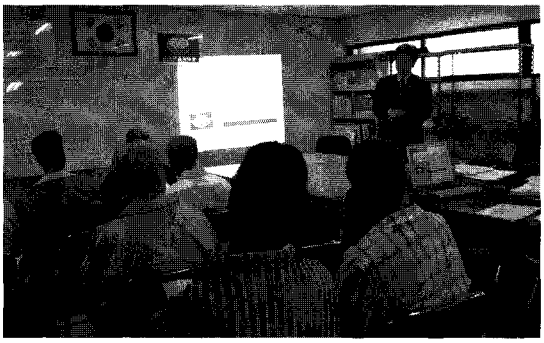
본회는 지난 5월 7일 제3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홍천지회를 폐쇄하고 홍천지부 설립을 승인했다.

홍천지회는 지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기존의 홍천지회를 폐쇄하고, 지난 4월 9일 홍천축협 2층 회의실에서 홍천지역 양돈농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 창립총회를 개최해 고영민씨를 초대 지부장으로, 총무에는 김광수씨를, 감사에는 박용배, 진남주씨를 선출한후 본회에 지부 설립승인을 신청했다. 한편 새로 선출된 고영민 지부장은 홍천축협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주지부, 자조금 거출 전 회원농가 참여 독려키로

영주지부(지부장 김익현)는 지난 4월 8일 지부 사무실에서 김익현 지부장 외 회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4월1일부터 징수되는 자조금 거출과 관련해 납부거부 농가가 있을 경우 본회 대의원과 지부장이 홍보·계몽키로 하는 등 양돈자조금 사업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연천지부, "자조금 거출 적극 동참키로"



연천지부(지부장 윤상협)는 지난 5월 15일 지부사무실에서 본회 최영열 회장과 윤상협 지부장 및 연천지부 회원과 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회 최영열 회장이 양돈자조금 사업의 추진현황 및 사업방향, 축산업 등록제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으며, 참석한 회원들은 양돈자조금 수납에 동참하지 않는 도축장에 대하여 양주, 포천, 파주, 김포지부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기로 했으며, 협조가 잘 안될 시 공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등의 논의를 했다.

한편 회원들은 폐사축 처리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줄 것 등을 건의키도 했다.

아산지부,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 개최

충남 아산지부(지부장 서석천)는 지난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산시 현충사에서 개최된 제43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기간에 맞춰 "돼지고기 수출부위 무료 시식회"를 실시했다.

합천지부, 돼지고기 홍보행사 개최

본회 합천지부(지부장 권용석)는 지난 4월 4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합천군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합천 벚꽃 마라톤대회 행사장에서 지부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에 참석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를 개최했다.

밀양지부, 무료시식회 개최

지난 5월 1일 본회 밀양지부(지부장 양대식)는 밀양 아리랑축제를 맞아 부경양돈농협의 후원 아래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행사를 개최했다.

산청지부,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계획

산청지부(지부장 김광규)는 지난 5월 4일부터 8일까지 산청군 산청공설운동장에서 제4회 지리산 한방 약초축제 기간동안 산청 브랜드

인 돈육 1등급 1급수 두충잎 먹은 돼지 '천왕포크'를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산청군과 산청축협의 후원으로 무료시식회를 개최하였다.

산청지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후지 등 수출부위의 소비를 적극 홍보하였다.

양주지부, 브랜드 사업 추진 등 논의

양주지부(지부장 조윤상)는 지난 4월 13일 지부 사무실에서 조윤상 회장 및 지부 회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정기월례회의를 개최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부 회원들은 약품 공동구매와 양돈자조금 거출에 관한 협의를 하고, 양돈자조금 거출에 적극 협조키로 협의했다. 한편 2005년도에는 기자재 및 사료첨가제의 공동구매와 돼지고기 브랜드 사업을 추진키로 하는 것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농장방역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도체등급 판정을 잘 받기 위한 의견 등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원주지부, 분뇨처리 문제 등 논의

원주지부(지부장 이병만)는 지난 4월 26일 지부 사무실에서 이병만 지부장 등 지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부 회원들은 양돈분뇨처리 문제와 지부의 원활한 운영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고기능성 생체활성 물질에 관한 세미나도 개최했다.

충주지부, 폭설 피해농가 돕기 나서

충주지부(지부장 장용기)는 지난 4월 19일 지부 사무실에서 장용기 지부장 등 지부 회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정기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원들은 당면 현안 등에 관한 논의 등과 함께 지부 회원 농가중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양돈세미나도 개최했다.

평택지부, 야유회 개최

평택지부(지부장 김용진)는 지난 5월 4일 부부동반으로 안면도 안흥에서 야유회를 개최했다. 평택지부는 이번 야유회를 통해 지부 회원 가족들간에 돈독한 정을 쌓는 좋은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지부를 중심으로 단합해 지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짐하고 돌아왔다.

김해지부, 사무실 이전

김해지부(지부장 이재식)는 지난 4월 30일 사무실을 이전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 이전 장소 : 김해시 부원동 611-1(중원빌딩 4층) 부경양돈농협 옆

□ 전화 : 055)333-6712